

6·25전쟁과 일본의 경찰예비대

— 미 극동군이 미친 영향에 관하여 —

葛原和三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1. 머리말
2. '경찰부대'로서의 창설
3. '방위부대'로서의 전력구축
4. 미 극동군이 미친 영향
5. 맺음말

1. 머리말

1950년 6월 25일 돌발적으로 시작된 북한군의 침공에 한국군과 미 극동군은 큰 충격을 받았다. 8월 북한군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던 부산교두보에는 일본주둔 미 3개 사단이 투입되었고,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제7사단도 인천상륙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로 인해 9월 중순부터 미국 국내의 2개 주방위사단이 일본에 도착하는 1951년 4월까지 일본에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창설된 경찰예비대는 한국의 국방경비대와 같이 처음에는 ‘Constabulary’로 불렸다. 이것은 미 군사고문단의 지도하에 경장비의 치안군으로 출발했는데, 그 후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상호 비교하는 작업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고찰에 도움이 되고자 본고에서는 6·25전쟁을 수행 중이던 미 극동군이 경찰예비대의 형성과 그 후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고찰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경찰부대’로서의 창설

(1) 북한군의 침공과 경찰예비대의 창설

1950년 1월 1일 연두성명에서 맥아더는 “헌법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아시아에서 냉전이 격화된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동년 6월 17일 대일강화 조정문제로 방일한 덜레스 특사는 맥아더에게 한정적인 재군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진언했고, 또 요시다(吉田) 수상에게도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요시다와 맥아더는 재군비에 관해 다 같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과 전황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침공을 한강 남안에서 살펴본 맥아더는 일본주둔 미 육군의 파견을 결심했다. 그리고 7월 8일, 맥아더는 요시다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경찰예비대 7만 5,000명의 창설과 해상보안청 8,000명의 증원을 지령했다.

그 동안 이미 먼저 파견된 미 제24사단은 7월 5일의 오산전투에서부터 22일 제1기병사단과 교대하기까지 17일간 사단장 이하 7,305명의 인원손실을 입었다.

6·25전쟁이 공산진영의 국제적인 도전이라고 인식한 육군성은 7월 31일 맥아더에 대해 직·간접적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의 재군비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예비대는 어디까지나 국내 치안대책을 위한 경찰군이어서야 한다는 맥아더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1950년 8월 10일 政令 제260호에 의거 경찰예비대가 발족했다. 경찰예비대의 지휘계통은 미군조직을 기준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담당대신-본부 장관 아래에 4개의 관구대를 총괄하는 總隊總監이 두어졌다. 이 새로운 조직의 성격에 관해서는 담당 대신들이 연합군 최고사령부(이하 GHQ로 칭함)와 절충을 계속해 7월 17일 그 ‘대강’이 정해졌다. 그 성격은 사변, 폭동 등에 대비한 ‘치안경찰대’이고, 장비는 “피스톨 이상 소총 등의 무기를 지니게 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예비대의 주요 인사는 구 군인이 공직에서 추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내무관료 및 경찰관이 배치되고, 제복의 장인 總隊總監에는 내무관료 출신인 하야시 게이조(林敬三)가 임명되었다. 이렇게 하여 비군사 경험자를 기간으로 하는 경찰예비대의 조직 만들기과 운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 제8군이 편찬한 ‘日本警察豫備隊史’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군은 ‘커버 플랜’(위장계획)에 따라 창설” 되었다고 되어 있고, 더구나 “위장 목적 때문에” 경찰조직과 시설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군대의 모체가 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미 군사고문단의 지도

경찰예비대는 주권회복까지 유엔군 최고사령관의 지휘하에 있었고, 그 지휘운용은 참모부 제2부가 본래 국가경찰과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찰예비대를 지휘하는 군사고문단의 임무는 민사국에 주어졌으며, 민사국장 셰퍼드 소장이 고문단장이 되었다. 명칭은 대외적인 문제 발생을 고려해서 민사국별실(CASA : Civil Affairs Section Annex)로 불려

졌고, 1950년 7월 14일에 설치되었다(요원은 1952년 3월 장교 322명, 하사관 599명 계 921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군사고문단은 옛츄우지마 학교(인사, 보급관계), 에타지마 학교(초급간부 교육, 무기, 시설, 통신 등), 도쿄 지휘학교(간부교육)에서 기본교육을 행함과 동시에 당초는 40개소에 가까운 캠프에서 통제된 훈련을 개시했다. 우선 기간요원 교육은 최초 예비합격자들 가운데 군경력, 학력 등으로 뽑은 제1기 320명에 대해 8월 28일부터 에타지마 학교에서 무기교육과 소부대 지휘 등의 교육(4주)을 행했고, 여기서 선발한 40명을 ‘지휘간부학교’로서 9월 18일부터 도쿄 지휘학교로 보냈다. 그리고 미군교관이 통역을 내세워 교육한 ‘지휘막료 과정’(6주)을 수료한 자를 경찰士長(소좌)으로 임명해 대대장과 막료로 삼았다. 간부교육은 總隊學校(久里濱) 설립 후인 1951년 5월 15일부터 일본인의 손에 맡겨져 ‘간부막료 교육’이 시행되었다.

부대 훈련실시는 고문단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였지만, 계획은 12월경부터 축차적으로 경찰예비대 본부에서 수습하게 했다. 제1~6기까지의 훈련 단계 등은 <표 1> ‘훈련 기간 구분과 훈련내용 등’과 같았다.

이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주요 小火器가 장비 완료된 제3기 훈련까지는 경찰부대로서의 치안훈련이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1951년 강화조약 조인(9월 8일)후인 제4기 훈련부터는 직종별 특기훈련이 포함되어 군대로서의 기능성, 전문성의 발아를 엿볼 수 있다.

(3) 중국군의 개입과 ‘방위부대’로의 변환

11월 25일, 린뽀오를 지휘관으로 하는 30만의 중국군은 압록강을 도하해 진격을 개시했다. 맥아더에게 중국군의 본격적인 개입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의미했고, 공산진영과의 전면전쟁을 예상시킨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미군과 한국군은 한꺼번에 남쪽으로 320km에 이르는 전면적인 후퇴가 이루어졌고, 이 때의 피해는 합계 1만 2,975명을 헤아렸다. 맥아더는 “우리

는 마야흐로 중공전체가 지닌 무한한 힘에다 소련의 보급 원조가 가해진 것과 대항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군 참전 이후는 미국전사에 전례가 없는 불리한 상황”과 그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중공에 대한 한국방어와 소련군의 침공 저지의 책임이 맥아더를 무겁게 짓누르게 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서울을 포기하게 된 1953년 1월 3일, 맥아더는 7만 5,000명의 카빈총만 대여되어 있던 경찰예비대의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태도를 뒤집어 “현 정세에서 경찰예비대에 장비를 매우 긴급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우선도는 6·25전쟁의 요구에 필적하며, 지연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예비대가 필요로 한 병기 품목’(<표 2> ‘경찰예비대가 필요로 한 병기 품목’ 참조)을 육군성에 처음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장비에는 당시 유일하게 T-34전차(85mm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여겨진 M26전차(90mm포) 307대를 포함해 장갑차는 총 760대에 달했으며, 중전차를 제외하고 미군 4개 보병사단에 상당하는 중장비가 요구되었다. 1월 7일 이 병기 품목에 대해 육군성은 “전차와 곡사포를 장비하는 중사단이 아니라 輕사단은 어떤가”라고 회답해 왔다. 다음날 맥아더는 이미 “한국의 경사단은 전차가 지원된 북한군에 대응하는 데는 불충분”했다고 하면서 “공산 독트린으로 무장되고, 훈련된 외국군대의 대일본 전면적 침공도 포함하는 모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전차 및 적어도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찰예비대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단언했다. 맥아더의 이 굳은 결심에 따라 경찰예비대는 경찰부대의 ‘커버’를 벗어던지고 방위부대로 나아가는 길이 선택된 것이다.

2월 9일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의 요청을 승인했지만, 국무성은 극동위원회의 비무장화 방침에 반하는 것 등을 이유로 중무장화는 지체되어 실현되지 않았다. 이윽고 이 맥아더의 정신적 중압은 중국본토에 대한 공격허가를 구하는 식으로 격상되었고, 본국정부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맥아더의 해임으로 연결되었다.

3. ‘방위부대’로서의 전력구축

(1) 소련침공의 위협과 구 군인의 복귀요구

1951년 4월 22일 중국군 3개 군단(9개 사단)이 동원된 4월 공세가 시작되었다. 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끊임없는 파상공격은 미군과 한국군에게 휴식 및 재편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서 첫 번째의 북한군 침공, 두 번째의 중국군 침공에 이어 세 번째 충격이 발생될까봐 염려된 것은 소련군의 개입에 따른 전면전쟁이었다.

동년 5월 9일자 합동참모본부의 ‘정세판단’은 소련의 일본본토 침공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소련극동군의 병력규모는 “35개 사단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7만에서 10만의 일본인으로 편성된 전투부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예측되었다. 그 “분명하고 절박한 적의 가능한 행동”은 “강력한 공산군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제8군의 위기보다도 1951년 중에 일본을 공격할 위험이 더 가능성이 있고 중대하다”고 맥아더의 후임인 매튜 리지웨이 극동군사령관에게 시사되었다.

이 때문에 미 국방성은 유럽방면과의 균형까지 고려하면서 일본의 대소방위강화를 위해 1951년 4월부터 제16군단(제40주, 제45주 방위사단)을 미 본국에서 일본으로 이동시켜 5월 10일부터 홋카이도, 아오모리의 방위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나 리지웨이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경찰예비대가 지휘막료 활동을 수행하는 위험성이었다. 리지웨이는 5월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축차적인 추방해제에 따라 “수천 명에 이르는 소좌까지의 장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고급 지휘관, 막료직을 수행하는 상급간부의 소요를 충당할 수 없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고급막료로 보좌된 군대(경찰예비대)에 2~3년간 우리들이 의존

하지 않으면 안되고, 소련이 그 기간에 공격해 올 경우 해군 대좌에 이르는 구 장교의 추방해제를 긴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5월 23일의 리지웨이 지시에 근거해 6월 5일 GHQ는 오카자키 관방장관을 불러 대좌급을 포함한 영관장교를 복귀시키자는 의향을 전했다.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염려한 미군이었지만, 소련의 위협을 앞에 두고 급속한 전력증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 군대 장교의 전력화가 불가결했던 것이다.

(2) 구 군인의 복귀와 전력증강

경찰예비대의 최초 대원모집은 5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며 18세부터 35세까지의 7만 4,156명이 입대했다. 이것을 1950년말의 대원구성비율에서 보면, 군대경력 52.5%는 비군대경력의 47.4%를 상회했다[圖 1> ‘경찰예비대원의 군 경력조사’ 참조. 채용된 구 장교는 5,251명(6.5%)이고, 사관학교 등의 군사학교를 졸업한 모든 정규장교가 제외되었다].

최초로 공모된 간부모집은 1950년 10월에 시작되어, 13배 이상의 응모자 가운데 800명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그 요항에는 “부하를 통솔 지도한 바 있는, 상응하는 사회적 경험”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고, 미 군사고문들로서는 이 같은 일반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급속한 전력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추방해제가 비로소 검토되었다. 우선 대상이 된 육사 58기생의 학반(한국의 정래혁씨 기수에 상당)은 개전 이후 입교해 소위로 임관한 것은 종전직전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볼 때 구 군의 영향은 적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1951년 6월 1일 선발된 245명이 제1기 간부후보생으로서 총대학교(久里濱)에 입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장교로서의 실무경험이 결여되어 있었고, 중견간부로서의 지식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2단계로서 육사 53기(종전시 소좌, 한국의 신용균씨 기수에 해당) 이상에 상당하는 과거 소좌, 중좌를 대상으로 10월 1일 405명의 前 영관급이 警察士長, 2등 警察正(소령~중령에 상당)으로 채용되었다. 뒤이어

제3단계로서는 12월 5일 407명의 위관이 채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1951년 말 복귀한 구 정규장교는 1,000명을 넘어, 간부 5,000명 가운데 다섯명 중 한 사람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圖 2> ‘간부 전체 중 구 정규장교 수’ 참조).

이들 간부에 대한 교육은 1951년 6월 1일부터 ‘총대학교’에서(1952년 10월부터는 ‘간부학교’) 시작되었고, ‘Operation’(FM100-5) 등을 교범으로 미군 전술이 교육되었다. 당시의 총대학교장은 “막료장 특명에 의해 미군 전법을 허심하게 배운다는 主 旨”에서 연구, 연습을 하고, “미군 막료의 사고과정이 행동방침의 분석 선정에 적용되었으며, 철저한 합리성의 추구하고 귀납법 수순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미군의 현행 교범을 통해 전술의 사고과정이 수학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전술교육을 실제 지휘막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좌 이상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예비대본부 군무원의 강한 반대로 인해 최후의 관문이 된 대좌급의 추방해제에 대해서는 구 군인의 예비대 참가에 부정적이었던 요시다 수상의 승인을 얻었다. 또한 보안대의 증원을 기회로 1952년 7월 23일 마침내 대좌(육사 제34~39기) 11명의 복귀가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복귀한 약 400명의 영관장교와 합쳐 지휘관막료의 조직화에 따른 전력증강이 기대된 것이다.

대일강화조약의 조인이 끝난 1951년 12월 합동참모본부는 주일미군과 장래 설치될 ‘일본방위부대’와의 역할분담에 관해 “미국과 합동으로 외적으로부터의 일본 방위를 유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서 일본방위부대(Japanese Defence Force)로 불려졌으며, 합동해야 할 방위부대로서 인식되어, 그 역할이 바뀐 것을 상징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의 중장비교육에 관해서는 대일강화가 발효된 해인 1952년에 들어와서부터 마침내 장비공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김으로써 리지웨이카 요시다 수상에게 중장비훈련에 관한 생각을 설명했다. 요시다는 훈련이 미군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이해했다. 동년 3월 12일 총대총감

부는 '소우마하라(相馬原)특별교육대'를 설치하고 4월 7일부터 중장비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로 예정된 보안대 발족과 증강에 맞춰 맥아더의 중장비요구는 대통령의 승인이 났고, 브래들리 육군참모총장은 7월 하순 '경찰예비대에 대한 중장비 대여'라고 제목이 붙은 각서를 보냈다. 그리고 8월부터 마침내 전차, 곡사포가 대여되었으며, 뒤이어 10월부터 보안대 발족태세가 가다듬어졌다.

4. 미 극동군이 미친 영향

(1) 편성장비와 작전사상의 수용

마지막으로 미 극동군이 경찰예비대에 미친 영향에 관해 편성장비, 작전사상 두 가지 관점에서 총괄해보고 싶다. 편성, 장비와 작전사상은 일체이며, 이것의 수용에는 우선 구 군의 편성장비와의 비교 및 작전사상의 반성이 근본이 되었을 것이다.

먼저 일·미 양군의 작전사상이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전력구성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군은 전력의 우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군은 “공격정신이 충만한 군대는 물질적 위력을 능히 능가”(‘作戰要務令’ 강령 제2)한다는 대목처럼 물질적 전력보다도 정신전력, 기계보다도 인간에 기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육군은 어디까지나 보병 위주의 편성에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화력, 기동력이 서로 어우러지는 타격력은 불충분했다. 이것은 미군을 기준으로 한 管區隊편성(<표 3> ‘관구대의 편성’)을 100으로 하여 구 육군, 미군, 소련군과 비교했을 경우 <표 3> 및 <圖 4> ‘관구대와 각국 보병사단의 전력비교’와 같았으며, 그 전력특성은 명료하다.

즉 관구대는 구 군 사단보다 포병화력에서는 포문 수에서 2배, 1분간 포탄 발사량은 3배, 기동력은 차량대비 약 5배로 증가했다. 특히 소련군과의 대적시 불가결한 대기갑화력, 대공능력의 향상이 두드러졌다. 이 장비의 질과 양은 소련 저격사단에 필적한다. 미군의 편성장비와 운용사상의 일체적 수용은 일본으로서의 건군 이래 획기적인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군 자신의 전략전술에 대한 반성에 관한 것으로서, 구 육군 장교 최대의 활동조직인 ‘하토리 그룹’의 싱크 탱크였던 ‘史實研究所’가 1951년 3월에 정리한 ‘구 육군의 典습 및 전술전략’ 등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신 “국방군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대담 솔직하게 잘못을 바로 잡고 부족함 없이 보충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육군지도층의 내부적 반성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① 합리성, 객관성의 중시, ② 물력 및 기술력의 중시, ③ 조직력의 통합발휘, ④ 작전준비의 중시, ⑤ 임무와 손해와의 관계 조정이라는 다섯 항목 외에 전술에 관해서는 ‘속전속결주의의 포기’, ‘운동전 사상의 시정’, 보병을 주로 삼는다는 ‘보병 主兵主義의 수정’ 등 17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이 내용은 어떤 경우든 일본군이 미군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항과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식의 편성장비와 작전사상은 일체적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미군 작전사상의 수용에 따른 사고과정의 공통화

작전사상의 핵심부분이 되는 상황판단의 사고과정에 관해서는 일·미가 각각 특색이 있었다. 일본식의 상황판단은 “임무를 기초로 하고, 아군의 상황, 적정, 지형, 기상 등 각종 자료를 수집, 고려한다”(‘作要’ 제8)고 되어 있고, 판단요소에 관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대체로 같았다. 그러나 일본식의 상황판단은 ‘항시 적에 대해 주동의 지위’(‘作要’ 제7)에 선 戰機를 포착한 재빠른 결심이 요구되었다. 말하자면 객관성과 합리성보다도 필요성에 따른

연역적 사고법이며, 상당한 수련을 쌓지 않으면 직감적인 결심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식의 상황판단은 지휘막료 활동을 통해 일정한 형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내려진 지침에 따라 막료에게 대략적인 눈대중의 일람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심하는 것인데, 일본식과 비교해 보면 실행 가능성을 중시한 귀납법적인 사고법이다.

이처럼 양극이라고 할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판단의 사고과정이 수용되었던 것일까?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은 러일전쟁 후 보병주체의 정신전력을 중점으로 한 일본의 독특한 작전사상을 확정했지만, 그 전까지 메이지 육군은 독일의 군사고문으로부터 紙上작전 연습, 참모여행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학습하고, 미 육군 역시 독일 참모본부의 시스템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원래 일·미 쌍방이 역사적 공통성이라는 토양에서 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찰예비대로 되어도 편성장비의 개선에 수반되는 전력이 보장되면, 구 군인출신자들에게도 미군식의 전술까지도 유연하게 적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침내 방위력이 구축됨에 따라 당시 탄약보급 등의 가능성에서도 미군과 같은 작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인식을 배경으로 미군의 작전사상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점차 일본식, 혹은 미국식 중 어느 쪽을 주로 할 것인가 하는 두 개의 생각으로 수렴되어 갔다.

1956년경이 되어 일본식 전술까지 도입한 교육을 진행시키는 이모토 구마오(井本熊男) 전 간부학교 교장과 미국식 전술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신구우 요우타(新宮陽太) 신임 간부학교 교장이 각 입장을 대표하는 격으로 서로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스기타 이찌지(杉田一丈) 육상자위대 막료장이 재정했는데, 어디까지나 미국식 전술을 채용해 나갈 것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복귀한 11명의 대좌이며, 그들이 작전사상을 구축해 가는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5. 맺 음 말

처음 겪는 패전으로 국민이 망연자실한 가운데 GHQ가 기초한 신헌법으로 인해 일본인 스스로의 손에 의해 재군비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6·25전쟁이 미군에게 미친 충격은 일본을 비군사회로부터 방향을 크게 전환시켰으며, 기왕에 창설된 경찰예비대는 치안부대에서 방위부대로 성격이 변화하도록 만들었다. 절실한 군사적 요청이 두 사람의 극동군사령관으로 하여금 중장비화와 구 군인들의 전력화를 결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귀한 구 군인의 영향이 염려되었지만, 구 군인이 왜 패했는가 하는 반성을 기점으로 오히려 미군의 장점에 대한 학습을 촉진시킬 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편성장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미국식 작전사상의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미 양국 사고양식의 공통화를 출발점으로 오늘날 일·미 연합의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자위대는 외국정벌군이었던 미군과도, 공세주의를 주창했던 구 육군과도 다른 국토방위부대로서, 어떻게 정신기반을 확립하고 작전사상을 구축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가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5.4. 12,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경찰예비대, CASA, 미 극동군, 6·25전쟁

「朝鮮戦争と警察予備隊」

— 米極東軍が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 —

葛原1佐

(日本防衛庁防衛研究所 戦史部)

1. はじめに

1950年 6月 25日、突如開始された北鮮軍の侵攻に韓国軍と米極東軍は大きな衝撃を受けた。8月、北鮮軍が圧迫を続けていた釜山橋頭堡には、在日米 3個師団が投入され、唯一残った第7師団も仁川上陸に参加させたため、9月中旬から、2個州兵師団が日本に到着する1951年4月まで日本には、軍隊が存在しなかったのである。

この軍事的空白を埋めるため創設された警察予備隊は、韓国国防警備隊と同様に当初は“Constabulary”と呼ばれ、米軍事顧問団の指導下に軽装備の治安軍として出発したが、朝鮮戦争を介して、その後日韓それぞれがどのように発展したかを相互に比較することは有益と考える。このような考察に資するため、本小論においては、朝鮮戦争を遂行中であった米極東軍が警察予備隊の形成と後の発展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

2. 「警察部隊」としての創設

(1) 北鮮軍の侵攻と警察予備隊の創設

日本の軍事力の必要性について米国が検討し始めたのは、1948年 10月 9日、東西対立を懸念した米国安全保障会議によって予備隊創設の原案(NSC-13-2)¹⁾が採択されたことを発端とする。さらに 1949年 6月 5日、統合参謀本部は、「日本における米合衆国の安全保障上の要件に関する戦略的評価」(NSC49)²⁾提出し、ここに至って日本での基地権の確保とともに限定的自衛力保持の必要性が浮上してきたのであった。さらに 8月 29日のソ連原爆実験の成功と 10月 1日の中華人民共和国の成立は、冷戦の激化を予測させ、11月 22日、陸軍省はマッカーサーに予備隊創設を進言した。米国内の日本を西側陣営内に確保したいという思惑から、主権回復後の防衛力保有の条件などが検討され、12月頃から対日講和構想は急速に具体化してきた。しかし、極東軍司令官マッカーサー元帥は、12月 18日、これらの要請を極東委員会の指令に矛盾するとして拒否したのであった。1950年 1月 1日、年頭声明でマッカーサーは「憲法は自衛権を否定せず」³⁾述べたもののアジアにおける冷戦激化の現実を認めようとはしなかった。

同年 6月 17日、対日講和の調整のため来日したダレス特使は、限定的な再軍備を受け容れるようマッカーサーに進言し、また、吉田首相にもその必要を説いたが、吉

1) 大嶽秀夫編『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1巻 *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三一書房, 1991) 「アメリカの対日政策に関する勧告についての国家安全保障委員会議の報告」220 p.

2)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DEFENSE on CURRENT EVALUATION OF THE U.S. SECURITY NEEDS IN JAPAN June 15, 1949 WASHINGTON.

3) 大嶽秀夫編『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1巻 *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三一書房, 1991) マッカーサー「年頭声明」233 p.

田、マッカーサーともに再軍備について否定的であった。

だが、朝鮮戦争の勃発と戦況はこれを許すものではなかった。北鮮軍の侵攻を漢江南岸で目にしたマッカーサーは、在日陸軍部隊の派遣を決心した。そして、7月8日、マッカーサーは吉田首相への書簡⁴⁾で国家警察予備隊7万5千の創設と海上保安庁8千の増員を指令したのである。

この間、既に先遣された米第24師団は、7月5日の烏山の戦闘から、22日第1騎兵師団と交代するまでの17日間で師団長以下7,305名が死傷していた。⁵⁾

朝鮮戦争が共産陣営の国際的な挑戦であると認識した陸軍省は、7月31日、マッカーサーに対し、直接、間接の両侵略に備えるための日本の再軍備を要請した。⁶⁾しかし、警察予備隊はあくまで国内治安対策のための警察軍であるというマッカーサーの基本的認識に変わりはなかった。

1950年8月10日、政令第260号により、警察予備隊が発足した。警察予備隊の指揮系統は、米軍組織を基準とし、内閣総理大臣―担当大臣―本部長官の下に4個の管区隊を統括する総隊総監が置かれた。この新組織の性格については担当大臣らがGHQと折衝を続け、7月17日その「大綱」⁷⁾が定まった。その性格は事変・暴動等に備える「治安警察隊」であり、装備は「ピストル以上小銃等の武器を持たせる」とされていた。

警察予備隊の主要な人事は、旧軍人が公職追放されていたため、これに代わって内務官僚及び警察官が配置され、制服の長である総隊総監には内務官僚出身の林敬三が任命された。こうして、非軍事経験者を基幹とする警察予備隊の組織づくりと運営が始まった。

4) 同上、大嶽秀夫編『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1巻 *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426 p.

5) 陸戦史研究普及会編『国境会戦と遅滞行動』(原書房, 1966) 194 p.

6) 増田弘『朝鮮戦争以前における日本の再軍備構想(二・完)』(法学研究72巻5号, 1999. 5) 54pに掲載された“SAOOA to SCAP Tokyo Japan, War 87569, July 31, 1950, NND 78007”による。

7) 前出、大嶽秀夫編『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1巻 *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三一書房, 199) GHQ「警察予備隊の『大綱』」444 p.

(2) 「カバープラン」の影響

1950年 8月 10日、日本政府は政令第260号を公布し、警察予備隊が発足した。この中で創隊の原因となった朝鮮戦争の動乱は「近隣諸国にある暴力、混乱、無秩序」という平静を装った表現で触れられ、警察力を期待するという文言となっており、「軍隊か、警察力か」という現在に至る論議の出発点となった。しかし、米極東軍第8軍司令部戦史室が編纂した「日本警察予備隊史」第1章序文⁸⁾は、「日本における警察予備隊の創設は、歴史的に非常に重要である。なぜなら新しい警察組織は実際には軍隊であったからである」という明快な書き出しで始まっており、将来の日本軍の母体となることが認識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その理由については「日本再軍備への動きは、いずれも内外の反響が大きい」と考えられたので、「日本の防衛軍は、『カバープラン』(偽装計画) によって創設⁹⁾された」とある。このため、「名称中の警察という単語及び新組織全体を通じての警察用語使用は、意図されているものが軍事力であることを十分にカバーしうる」として、「偽装目的のために、予定計画の初期段階では、G2公安課が警察予備隊を統制するよう見せかけ、必要な期間、国警幹部と警察施設が使用された」とある。つまり、GHQでは、将来の日本軍隊にするという実態認識はあったものの形態と機能としては国家警察が期待されていたのである。

1950年 6月、対日講話条約に関するダレス特使と吉田首相の会談においては、講和条約が締結した以降ある程度の軍備をもたなければならず、その腹案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こで吉田は、英国大使時代に駐英武官で旧知であった辰巳栄一元陸軍中將を軍事顧問として準備を進めることにした。しかし、日本はまだ戦後5年で急激な方向転換は国民の同意が得られないと確信した吉田は、憲法、国民感情及び経済状態を理由に再軍備を頑なに拒み続けた。

8)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Officer HQ AFPE/ Eighth Army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RESERVE OF JAPAN"(23 July 1955) 1 p.

9)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Officer HQ AFPE/ Eighth Army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RESERVE OF JAPAN"(23 July 1955) 41~44 p.

軍事顧問団の参謀長となったコワルスキー大佐は、後に回想において「米国が日本の保守政権と腹を合わせて憲法を無視した不正は、今になっていかなる詭弁を弄しても正しうものではない。・・・困難なものであったかはしれないが、マッカーサー元帥は吉田首相と適当な社会党領袖を招き、日本が直面している軍事情勢を説明し、国家のことを本当に憂えるならば、小規模な軍隊を建設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強調することは、彼の権限と信望をもってすることができたはずである。軍隊の健全な発展を阻害することに鑑み、マッカーサー元帥は憲法の一部を改正すべきであった。」¹⁰⁾と述懐している。

(3) 米軍事顧問団の指導

警察予備隊は、主権回復まで連合国最高司令官の指揮下にあり、その指揮運用は、参謀部第2部が本来、国家警察とともに運用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しかし、警察予備隊を指導する軍事顧問団の任務は、民事局に与えられ、民事局長シェパード少将が顧問団長となった。名称は対外的な配慮から、民事局別室(CASA: Civil Affairs Section Annex)と呼ばれた。この時期は朝鮮戦争勃発直後であり、その多忙な業務の中で行われた。総司令部にとっては先ず、朝鮮戦争に出動する要員を確保することが急務であったのでCASAの要員は、当初、将校158人、下士官兵217名であり、事務官30名を合わせても、合計405名に過ぎなかったが、参謀部第3部もCASAの増員の切迫性を認め、52年4月には将校322人、下士官兵599人、事務官54人の計75名と最大規模となった。¹¹⁾

軍事顧問団(CASA)は、越中島学校(人事、補給関係)、江田島学校(初級幹部教育、武器、施設、通信等)、東京指揮学校(幹部教育)で基本教育を行うとともに当初は40カ所に近いキャンプで統制した訓練を開始した。まず、基幹要員教育は、最初の子備隊合格者から軍歴、学歴等で選んだ第1期320名に対し、8月28日から江田

10) フランク・コワルスキー(勝山金次郎訳)『日本再軍備 米軍事顧問団幕僚長の記録』(中央公論新社, 1999) 388 p.

11) 防衛庁『自衛隊十年史』(大蔵省印刷局, 1961) 373 p.

島学校において武器教育と小部隊の指揮等の教育(4W)を行い、ここで選抜した40名を「指揮幹部要員」として9月18日から東京指揮学校に送り、米軍教官が通訳を介して教育した「指揮幕僚課程」(6W)を修了したものを警察士長(少領)に任命し、大隊長や幕僚とした。幹部教育は、総隊学校(久里浜)設立後の1951年5月15日から日本人の手に委ねられ、「幹部幕僚教育」が行われた。¹²⁾

CASAの直接的な統制は、人事から、文書管理、物品調達など全てにわたって行われ、最も事務的な干渉が強かったのは肝心の教育訓練であった。訓練の内容、計画、方法などはすべてにCASAの指示に従うことが要求され、警察予備隊独自のものを組み入れることは許されなかった。

警察予備隊本部は、対日平和条約発効前に「米軍の干渉に対する隊員の動向」¹³⁾として次のように状況を分析している。米軍の過度の干渉に対する隊員の動向は、ほぼ反感、迎合、無関心の三つに大別できる。数的には無関心が大多数で反感と迎合はごく少数である。反感の理由としては米軍の干渉が、必要以上に広範で細部にわたっており自主性を認めないこと、またその指導は日本と日本人の実情を無視したものが多く、この原因は日本人の能力を見くびり、日本人を蔑視しているためと思われる場合が多いこととしていた。このような反感派は中堅幹部級に多く、それが一般隊員にも次第に反米感情となって波及していったとしている。中でも旧軍人の多くはいずれ国軍への基盤となると信じて志願してきたものの米軍の統制が厳しく幻滅して退職するものも多かった。

第1期～第6期までの訓練段階等は、[表1]¹⁴⁾「訓練の期区分と訓練内容等」のとおりであり、第6期が終了する頃は、警察予備隊として連隊水準の野外行動が可能になった。この表から、主要な小火器の装備が終わった第3期訓練までは、警察部隊としての治安訓練が主体であったが、1951年、講和条約調印(9月8日)後の第4期訓練

12) 陸上自衛隊幹部学校「陸上自衛隊幹部学校史(第1編)」(1958) 7～8 p.

13) 防衛庁史室編「戦後防衛の歩み(警察予備隊から自衛隊へ) 28教育訓練」(朝雲新聞, 1989) 5月25日号記事。

14) 装備の数値は陸上幕僚監部総務課発行「警察予備隊総隊史」(1958) による。

からは職種別の特技訓練が入り、軍隊としての機能性、専門性の萌芽がうかがえる。

3. 「防衛部隊」としての戦力の構築

(1) 中共軍の介入と「防衛部隊」への変換

1950年11月25日、中共軍30万は、鴨緑江を渡河し進撃を開始した。マッカーサーにとって中共軍の本格介入は、「全く新たな戦争」¹⁵⁾を意味し、共産陣営との全面戦争を予想させる真の衝撃となった。米韓軍は一挙に320kmに及ぶ南への全面後退となり、ここでの死傷者は、計12,975人を数えた。マッカーサーは、「われわれはいまや、中共全体の持つ無限の力にソ連の補給面での援助が加わったものと対抗している」¹⁶⁾との認識のもと、「中共軍の参戦以後は、米国戦史に前例のない不利な状況」¹⁷⁾とその危機感を露わにしている。今や、マッカーサーには中共に対する韓国防衛とソ連の日本侵攻抑止の責任が重くのしかかってきたのである。

ソウル放棄の止むなきに至った1951年1月3日、マッカーサーは、7万5千丁のカービン銃が貸与されているに過ぎない警察予備隊の現状から、これまでの態度を翻し、「現在の情勢から警察予備隊への装備品の交付は緊急であり、その優先度は朝鮮戦争の要求に匹敵し、遅延は許されない」¹⁸⁾として「警察予備隊に必要とされる兵器リスト」を陸軍省に対して初めて要求した。([表2]「警察予備隊に必要とされる兵器リスト」参照)¹⁹⁾

15) マッカーサー『マッカーサー回想記<下>』(朝日新聞社, 1964) 281 p.

16) 同上、『マッカーサー回想記<下>』282 p.

17) 同上、『マッカーサー回想記<下>』283 p.

18)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Officer HQ AFPE/ Eighth Army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RESERVE OF JAPAN"(23 July 1955) 206 p.

19) 同上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RESERVE OF JAPAN"(23 July 1955) 206 p に記載,C52610 CINCFE, Tokyo to Depart of Armによる。同資料は石井修他『アメリカ

これらの装備には、当時唯一、T-34戦車(85mm砲)に対抗できるとされたM26戦車(90mm砲)307両を含み、装軌車は合計760両に達し、中戦車を除いては米軍4個歩兵師団に相当する重装備が要求されていた。20)1月7日、この兵器リストに対して陸軍省は、「戦車や榴弾砲を装備する重師団ではなく軽師団ではどうか」と回答してきたが、翌日、マッカーサーは、既に「韓国の軽師団は、戦車に支援された北鮮軍に対応するには不十分」であったとし、「共産ドクトリンによって装備され訓練された外国軍隊による日本に対する全面的侵攻も含むあらゆる事態」への対応のため、「中戦車及び少なくとも榴弾砲を持たない警察予備隊は全く不十分である」²¹⁾断言した。マッカーサーのこの固い決心によって警察予備隊は、警察部隊の「カバー」を脱ぎ捨て防衛部隊への道が選択されたのである。

2月9日、統合参謀本部はマッカーサーの要請を承認したが、国務省は極東委員会の非武装化の方針に反することなどを理由として重武装化は遅々として実現されなかった。やがてこのマッカーサーの精神的重圧は中国本土への攻撃許可を求めるなどとエスカレートし、本国政府との隔たりは必然的にマッカーサーの解任へとつながっていった。

(2) ソ連侵攻の脅威と旧軍人の復歸要求

1951年4月22日、中共軍3個軍(9個師団)による4月攻勢が始まった。その損害を顧みない連続不断の全正面攻撃は、米韓軍に休養と再編成を許さないものであった。ここで第1の北鮮軍の侵攻、第2の中共軍の侵攻に続いて第3の衝撃として恐れられてい

統合参謀本部資1948~1953第12巻(柏書房, 2000) 324~325 p, 訳文は大嶽秀夫編『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2巻*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三一書房, 1991) 277 p.

20) Staff Officers, Field Manual, Organization, Technical, and Logistical Data (「幕僚業務諸元」)FM100-1, (1949)の歩兵師団編制表による。歩兵師団に戦車は、重戦車大隊63両と3コ歩兵連隊の各重戦車中隊は20両であるので連隊で60両、師団総計では123両となるので戦車数では4個師団分には満たない。

21) 前出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RESERVE OF JAPAN"(23 July 1955) 207 p.

たのは、ソ連軍の介入による全面戦争であった。

同年5月9日の統合参謀本部の「情勢見積り」²²⁾は、ソ連の日本本土侵攻の可能性が示唆されていた。ソ連極東軍の兵力は、「35個師団からなり、これには7万から10万の日本人によって構成された戦闘部隊が含まれている」と見積られていた。海軍は潜水艦多数を有し主力以外の一部でも脅威になりうる上に、空軍は、「戦闘機2千2百機、6百の攻撃機、1千7百の爆撃機、5百の輸送機、3百機の偵察機、計5千3百機」としていた。その可能行動は、ワシントンの上層部は「1951年の8月から9月にかけて共産主義陣営の全面攻勢の可能性大」とし、「明らかに切迫した敵の可能行動」として最大の危機として報告されていた。

このため、米国防省は、欧州方面とのバランスをも考慮しつつ、日本の対ソ防衛強化のため、1951年4月から第16軍団(第40・45州兵師団)を米本国から日本に移駐させ、5月10日から北海道、青森の防衛責任を付与した。しかし、リッジウェイが、最も危惧していたのは警察予備隊の指揮幕僚活動の危うさであり、5月23日、統合参謀本部への報告²³⁾にお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逐次の追放解除によって「数千人に及ぶ少佐までの将校が使用できるようになるが、高レベルの指揮官・幕僚職を遂行する上級幹部の所要を充たすことはできない。」そして「能力不十分な高級幕僚によって補佐された軍隊(警察予備隊)にこの2~3年間我々が依存しなければならず、ソ連がその期間に攻撃に出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米軍人の損失は更に高価なものになるであろう」と懸念し、「旧陸海軍の大佐に亘る旧将校の追放解除」²⁴⁾を緊急に施策すべきとした。リッジウェイの5月23日の指示に基づき6月5日、GHQは岡崎官房長官を呼び、大佐級

22) REPORT BY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TRANSFER OF CERTAIN NON-MILITARY FUNCTIONS IN JAP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9 MAY 1951)、同資料は石井修他『アメリカ統合参謀本部資料 1948-1953 第5巻』(柏書房、2000) 185~188 p による。訳文は五十嵐武士『対日講話と冷戦—戦後日米関係の形成』(東京大学出版会、1987) 208 p による。

23) Msg C-63167(TS), SCAP to DEPTAR(for JCS), 23 May 1951.

24) 前出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RESERVE OF JAPAN"(23 July 1955) 166 p "such broa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hereof as would permit the release of officers up to and including the rank of army colonel and navy captain."による。

を含む佐官を復歸させる意向を伝えた。²⁵⁾日本軍国主義の復活を恐れていた米軍であったが、ソ連の脅威を前にして急速な戦力増強を図るには旧軍将校の復歸による戦力化が不可欠と判断されたのである。

(3) 旧軍人の復歸と戦力の増進

警察予備隊最初の隊員募集は、5倍以上の競争率を経て18才から35才までの74,158名が入隊した。これを50年末における隊員構成²⁶⁾から見ると、軍歴52.5%は、非軍歴の47.4%を上回っており、このうち、採用された旧将校は、5,251名(6.5%)であったが、すべて予備役の将校であり、士官学校等の軍学校を卒業した正規将校が除かれていた。(〔図1〕「警察予備隊員の軍歴調査」参照)

最初の公募幹部募集は1950年10月に始まり、13倍以上の応募者の中から800名が採用されたが、その要項には、「部下を統率指導した相応の社会的経験」を有することとされており、米軍事顧問はこのような一般層のみを対象としては、急速な戦力化は望めなかった。そこで追放解除が初めて検討され、まず、対象となった陸士58期生のクラス(韓国：丁来赫氏相当期)は、開戦以後入校し、少尉に任官したのは終戦直前であったことから、旧軍の影響は少ないと見積られたのであった。こうして1951年6月1日、選抜された245名が第1期幹部候補生として総隊学校(久里浜)に入校した。しかし、彼らはやはり、将校としての実務経験に乏しく、中堅幹部としての知識も十分ではなかった。

そこで第2段階として陸士53期(終戦時少佐、韓国：申応均氏相当期)相当以上の元少佐、中佐を対象とし、10月1日、405名の元佐官が警察士長、2等警察正(少領～中領に相当)に採用され、ついで第3段階としては、12月5日、407名の尉官が採

25) 中島信吾「戦後日本型政軍関係の形成」(『軍事史学』133号、錦正社、1998) 28 p.

26) 防衛庁人事局人事第2課『募集十年史(上)』(統計印刷工業株式会社、1961) 119 p. さらに戦後5年の経過を考慮すると、終戦時に18才未満であった22才までの若年隊員は、43,551名(53.8%)であり、この比率は、非軍歴の47.4%よりも多いことから、23才以上の隊員はほとんど軍歴保持者であったと類推できる。

用された。こうして1951(昭26)年末には、復歸した旧軍正規将校は1,000名を越え、幹部5,000名の内、5人に1人を占めるに至った。(〔図2〕「幹部全体における旧正規将校数」参照)

これら幹部に対する教育は、1951年6月1日から「総隊学校」において(1952年10月からは「幹部学校」)始まり、“Operations”(FM100-5)等を教範として米軍戦術が教育された。当時の総隊学校長は、「幕僚長特命により米軍戦法を虚心に学ぶ主旨」から研究演習を行い、「米軍幕僚の思考手順が行動方針の分析選定にあたり、徹底的な合理性の追求と帰納法手順を採用しているのが印象深かった」と回想²⁷⁾しており、このように米軍の現用教範²⁸⁾を通じて戦術の思考過程が学ばれていた。しかし、これらの戦術教育を実際の指揮幕僚活動へと総合していくには、どうしても大佐以上の指導者が必要とされた。リッジウェイは「これらの幹部が居なければ、警察予備隊の部隊が我々の必要とする程度に迅速に師団としての戦闘効果を獲得する能力は大きく阻害されることになる」²⁹⁾という認識であった。そこで予備隊本部文官の強い反対³⁰⁾により最後の関門となっていた第4段階は旧軍大佐級の特別幹部であった。

政府には、主権回復による防衛力強化の必要もあり、旧軍人の予備隊への参加に否定的³¹⁾であった吉田首相の承諾も4月に得て11名の元大佐(陸士34~39期)の復歸が決まり、保安隊への増員を機として1952年7月14日付で一等警察正として採用した。これによって既に復歸していた約400名の佐官とあわせ、指揮官幕僚の組織化による戦

27) 警察予備隊総隊学校二代校長加納富夫「30周年に寄せて」幹部学校『幹部学校三十年史』(九段社、1982) 21 p.

28) 基本教範1949年“Field Service Regulations-Operations”(FM100-5) は保安隊となった1952(昭27)年 10月、「作戦原則」として翻訳された。また、軍団以上の運用教範“Larger Units”(FM 100-15, 1952.10 改訂版) は、翌1953(昭28)年3月に「大兵団の運用」として、また“Staff Officer's Field Manual”(FM 101-5) が「幕僚勤務」として、さら“Staff Officer's Field Manual Organization, Technical, and Logistical Data”(FM 101-10 1949. 8)が、「幕僚業務諸元」として1953(昭28)年 3月に整備された。

29)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Officer HQ AFFE/ Eighth Army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RESERVE OF JAPAN” (23 July 1955) 166 p.

30) 前出『日本再軍備 米軍事顧問団幕僚長の記録』(中央公論新社、1999) 211 p.

31) 前出、大嶽秀夫編『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1巻』辰巳栄一インタビュー記録 507 p.

力の増強が期待されたのである。

対日講和条約の調印が終わった年の1951年12月、統合参謀本部は、在日米軍と将来設置される「日本防衛部隊」との役割分担³²⁾については、「米国と共同して外敵からの日本の防衛を維持する。」の項目を加えることとなった。この文書で日本防衛部隊(JAPANESE DEFENSE FORCE)と呼ばれており、共同すべき防衛部隊として認識され、その役割が変わったことを象徴している。

1952年度からは毎年500名の保安大学校の学生教育が始まるとともに、保安隊増員のための一般公募幹部2,000名の募集があり、多くの応募者11,500名(軍歴保持8,444名:73.3%)の内から、1915名が選抜され加わった。このように保安隊に移行する準備としても教育訓練体系の整備確立が望まれるようになった。

(4) 重装備化に伴う教育訓練指導

軽装備から重装備の訓練への移行は、警察部隊から防衛部隊への実質的な移行を意味していた。このため、吉田首相とリッジウェイの会談は1952年(昭27)に入ってから数回にわたって行われ、吉田はリッジウェイから重装備訓練の考え方について説明を受け、訓練が米軍基地内で行われることを前提に了解した。同年、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連合国の承認を得て3月12日、総隊総監部は「相馬原特別教育隊」の設置を決めた。この時点で警察予備隊が装備していた最大の火砲は81mm迫撃砲であったが、4月28日の対日平和条約の発効による主権回復を待たずして4月7日から重装備訓練が始まった。

これら新装備の技術教育の可能性について極東軍司令部第3部の訓練見積りは、「日本人の将校団の質と一般用車両の利用可能性の如何にも依存している。もし軍事経験者である日本人が現在利用されていない供給源(公職追放された元軍人)から採

32) 統合参謀本部 “HIGH LEVEL STATE DEFENSE MISSION ON JAPANESE FORCE”(「日本防衛部隊に対するハイレベル米国防衛任務との関係」)(1951.12.13 JCS1380/127) 同資料は石井修他『アメリカ統合参謀本部資1948-1953第14巻』(柏書房, 2000) 99 p に掲載。

用されたならば、また、一般車両の大部分が日本ではなく合衆国からの物資で供給されたならば、9~11ヶ月以内に妥当な戦闘力のレベルに達する。」³³⁾とし、装備供給時期と旧軍人技術者の追放解除の可能性に依存していたことが認識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段階的訓練の進捗に欠かすことの出来ない一般車両は、逐次の貸与と国産車両の購入により整えられていった。³⁴⁾

米極東軍司令官の要求に応じ、米国政府内では陸軍参謀長が、1952年7月下旬「警察予備隊に対する重装備の貸与」と題する覚書(JCS 1380.1952.7.12)を送り、大統領は重装備の貸与を許可した。そして警察予備隊の11万人への増強と保安隊発足に伴い、これまで保留されていた重装備の受け渡しが決定的な決定された。

そして1952年8月に予定された保安隊発足と増強にあわせ、マッカーサーの重装備要求は大統領に承認され、ブラッドレー陸軍参謀長は、7月下旬「警察予備隊に対する重装備の貸与」と題する覚書³⁵⁾を送った。そして8月からついに戦車・榴弾砲が貸与され、10月からの保安隊の発足態勢が整えられていったのである。

4. 米極東軍が及ぼした影響

(1) 米式統御の受容と新たな精神基盤の確立

警察予備隊は、編成装備から服制に至るまですべて米軍が基準となっていたが、い

33) 極東軍総司令部「警察予備隊の重武装化」(大嶽秀夫編『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2巻 *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三一書房, 1991) 284 p.

34) 車両の1951年7月までの購入数は、2,130両であり、米軍歩兵師団の65%とした充足率のさらに18%に過ぎなかった。だが、同年度末に国産(いすゞ)の280両を契約するとともに1952年1月以降、逐次米軍車両の貸与を受け、7月からの火炮、戦車などの逐次の充足を受けた。保安隊に改編された27年8月末、その装備定数は、自走車両7,700から15,000に2倍の車両を有するようになった。

35) JCS 1380/146 Decision "Release of Heavy Armament to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Reserve"(21.july 1952). 同資料は石井修他『アメリカ統合参謀本部資1948-1953 第15巻』(柏書房, 2000) 206~212 p による。

かに統率するかという精神的 content については、米軍はどのように影響を与えているのだろうか。

米軍の統御は、民主主義の原則に基礎を置いた合理的民主的統御(Persuasive Leadership：心服統御と呼ばれる)であるが、旧軍の統御はこれと正反対であり、天皇を頭首とする上長からの威圧統御であった。したがって民主主義の定着していない当時において、民主的統御が果たして受け容れられたのであろうかという疑問が生じる。

戦後改正された『作戦原則』(1949版)³⁶⁾には、「正しい義務観念、自己の部隊に対する誇り、戦友相互の職責理解の念に支えられた強い兵は、ただ処罰と恥に対する恐怖のみを吹き込まれたものより、遙かに戦闘において士気を阻喪することが少ない。」(第83)とこれまでになかった条項が加えられ、対極に捉えら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日本陸軍への勝利によって自信を深めているのがうかがえる。このように米軍は、「正しい義務観念」を支えることに重点を置き、兵士に至るまで徹底を図るのは、民主的軍隊の特色であった。

このような米軍の統御法は、どちらかといえば他律的であった日本人の考え方に感化を与えた。新組織である警察予備隊においては、旧軍と異なり、個人の自主性や自律性を重視し、個人の自覚によって規律を維持する組織を作ら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なぜなら、警察予備隊の隊員は軍人ではなく、国家公務員であり、軍法によって律することの出来ない組織であったからである。

吉田首相が抱いていた構想によれば、新国軍は「制度的にも人的にも旧日本軍との連続性を断ち切り、アメリカの援助によって『民主的軍隊』として育成していく」³⁷⁾という希望が述べられていた。そこで林敬三総隊総監が先ず、取り組んだのは、警察予備隊の基本的精神を確立す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林総監は、「天皇」に代わるものを国家、国民とし、「警察予備隊の基本精神は、愛国心、愛民族心である」³⁸⁾と呼びかけた。

36) Field service regulations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 August 1949.

37) 波多野澄雄、佐藤 晋「アジア・モデルとしての吉田ドクトリン」(『軍事史学』156号, 2004) 13 p.

38) 林敬三「総監就任に際しての訓示(1950. 10)」大嶽秀夫編『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1巻 *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三一書房, 1991) 489 p.

近代国防軍として国民を護り、国民の負託に応えることを至上の任務としたことは「天皇の軍隊」から「国民の予備隊」へと近代史上から見ても大きな改革となそうとしていたといえる。

しかしながら、「国民の予備隊」を目指しても現実には国民との接点がなくは、隊員の拠り所とすることは難しかった。そこで災害派遣、部外工事、農家に対する援農や各種行事の支援などあらゆる機会を自ら求めていくという意識が生まれ、やがて「愛される自衛隊」を標榜する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ある。米軍の民主的統御は、こうした自助努力を伴うことによって形だけではなく、性格、内容にも深く浸透していったことが理解される。

(2) 編成装備と作戦思想の受容

次に米極東軍が警察予備隊に与えた影響を編成装備と作戦思想の観点から総括していきたい。編成・装備と作戦思想は一体であり、これを受け容れるには、先ず、旧軍の編成装備との比較及び作戦思想の反省が根本となったであろう。

まず、日米両軍の作戦思想の基本的な相違は、戦力構成の差異に基づく。米軍は、戦力の優越を前提としていたのに対し、日本軍は、「攻撃精神充溢せる軍隊は能く物質的威力を凌駕して」(「作戦要務令」綱領第2)とあり、物的戦力よりも精神戦力、機械よりも人間に頼らざるを得なかった。このように陸軍は、あくまで歩兵を主とする編成装備としたため、火力・機動力の相乗した打撃力については不十分であった。これは米軍を基準とした管区隊編成([図3]「管区隊の編成」)を100として旧陸軍、米軍、ソ連軍を比較した場合、その戦力特性は明瞭である。³⁹⁾(前出の[表3]及び[図4]「管区隊の各国歩兵師団との戦力比較」参照)

39) 管区隊、米・ソ師団の戦力比は195年防衛研究所資料「管区隊(混成団)の戦力分析」(昭32年、吉田1佐作成)、旧日本歩兵師団編制表は、桑田悦、前原透『日本の戦争』(原書房、1982) 第2部9pの3単位制、第16師団編制表(砲兵連隊：38式75mm野砲大隊各12門×2、91式10榴弾砲12門×1)をもとに弾量を算定(歩兵の小火器類の弾薬を除く)した。管区隊の対戦車火器117の内訳は、89mmロケットランチャー×81は特科連隊等自衛用対戦車火器475を除いた上、75mm無反動砲×36を合計している。対空火器は、M19高射自走砲(40mm×2) 24両、M16自走高射機関銃(12.7mmMG×4) 24両の総門数を合計した。

すなわち、管区隊は、旧軍師団より砲兵火力においては門数比で2倍、1分間の最大発射速度での発射弾量比においては3倍、機動力は車両比で約5倍増加している。特にソ連軍と対する上で不可欠な対機甲火力、対空能力の向上が著しい。この装備の質・量はソ連狙撃師団に匹敵し、米軍の編成装備と運用思想の一体的受容は、日本にとっては建軍以来の画期的な近代化をもたらしたといえる。

次に日本軍自身による戦略戦術の反省についてであるが、実質上、旧陸軍将校最大の活動組織となっていた「服部グループ」のシンクタンクであった「史実研究所」⁴⁰⁾が1951年3月にまとめた「旧陸軍の典令及び戦略戦術」等についての研究資料⁴¹⁾がある。ここには、新「国防軍は謙虚に内省し、大胆率直に誤りを正し、足らざるを補い」と書かれており、陸軍指導層の内部的反省と見てよいであろう。全般として「①合理性・客観性の重視、②物力及び技術力の重視、③組織力の統合発揮、④作戦準備の重視、⑤任務と損害との関係の調整」の5項目の他、戦術については「速戦即決主義の放棄」、「運動戦思想の是正」、「歩兵主兵主義の修正」など17項目が挙げられており、この内容は、いずれも日本軍が米軍から学ぶべき事項と一致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したがって米式の編成装備と作戦思想は、一体的にかつ自然に受け容れられたと見るべきであろう。

40) 1952年、服部卓四郎大佐がGHQ資料調査部及び復員局資料調査部を辞任した後、服部グループが国防問題研究のため任意団体として設けた事務所である。所長は服部自身であり、所員であった井本熊男、西浦進などが警察予備隊に入隊した。

41) (元陸軍大佐西浦進寄贈) 史実研究所研究資料「旧陸軍典令及び戦略戦術並びに統帥指揮に関する思想中改正又は増補を要する基本事項について」(防衛研究所図書館 1951.3)ここには、本文5項目の他、戦術の反省項目には、以下の17項目にわたっている。①速戦即決主義思想の強調の放棄、②運動戦を基本とする思想の是正、③防御軽視観念の排除、④重点思想解釈の是正、⑤奇襲・戦機捕捉観念の戒め、⑥縦長戦力重視の強調、⑦戦況判断に於ける客観性の必要、⑧攻撃の主眼の修正、⑨陣地を占領する敵に対する陣外決戦過重視の弊排除、⑩対上陸決戦防御に於ける陸上防御思想の確立、⑪対戦車戦闘の重視強調、⑫歩兵主兵主義の修正、⑬歩兵の白兵突撃思想の修正、⑭情報勤務の重視及び之が強調、⑮兵站業務の重視向上、⑯通信連絡、⑰宣伝謀略に関する観念の修正

(3) 米軍作戦思想の受容による思考過程の共通化

米軍の影響は教育訓練の準拠となった各種多種の米軍教範を通して受け容れられた。中でも基本的なものは、1949年版の米陸軍運用教範「Operations」(FM105)であり、保安隊となった年の1952(昭27)年10月、教材として翻訳され、「作戦原則」と題して配布された。

また、翌1953(昭28)年3月、軍団以上の運用教範(「Larger Units」(FM100-15, 1952.10改訂版)が「大兵団の運用」として配布された。これらはいずれも教育訓練の参考として配布される教材という扱いであったが、現用米軍教範の直訳を使用していたのでこの間は日米の共用教範時代であったと言える。

作戦思想の核心部分となる状況判断の思考過程については、日米それぞれの特色があった。日本式の状況判断は、「任務を基礎とし、我が軍の状況、敵情、地形、気象等各種の資料を収集考量し」(「作要」第8)とあり、判断の要素については日米概ね同様であった。しかし、日本式の状況判断は、「常に敵に対し主動の地位」(「作要」第7)に立っての戦機に投じた迅速な決心が求められた。いわば客観性や合理性よりも、必要性による演繹的思考法であり、相当な修練を積まなければ直感的な決心に陥る嫌いがあった。

これに対し米式の状況判断は、指揮幕僚活動を通じて一定のフォームを適用するものであり、指揮官は示した「指針」に基づいて幕僚に見積りを提出させ、その成果を総合的に判断して決心するものであり、日本式と比較すれば実行の可能性を重視した帰納法的な思考法といえる。

このような両極とも言える違い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なぜ、状況判断の思考過程が受容されたのだろうか。その理由としては考えられるのは、日本は日露戦争後に歩兵主体の精神戦力を重点とした日本独特の作戦思想を確定したが、かつて明治陸軍は、ドイツの軍事顧問から兵棋演習、参謀旅行などを通じて論理的に学習し、米陸軍もまたドイツ参謀本部のシステムから多くを学んでおり、元来、日米双方は歴史的共通性の土壌に育ったことがあげられる。したがって警察予備隊となっても編成装備の改善

に伴う戦力が保障されれば、旧軍人出身者においても米軍式の戦術戦法をも柔軟に適用する素地はあったといえる。

やがて防衛力が構築されるに従い、当時の弾薬補給等の可能性からも米軍同様の作戦はできるのかという現実認識を背景として、米軍の作戦思想が見直されることとなり、次第に日本式か、米国式かのどちらかを主とするかの2つの考え方に収斂していった。

1956年頃になって日本式戦術も取り入れた教育を進める井本熊男前幹部学校長と米国式戦術の徹底を進める新宮陽太新幹部学校長との間に代表される激論が交わされ、結局、杉田一次陸上幕僚長が裁定し、あくまでも米国式戦術の採用していくことを明確にしたのであった。⁴²⁾この3名は、いずれも復帰11名中の大佐であり、彼らが作戦思想を構築していく上で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たといえる。

5. おわりに

初めての敗戦によって国民が茫然自失の中、GHQ起草の新憲法によって日本人自らの手による再軍備の道が閉ざされてしまった。しかし、朝鮮戦争が米軍に与えた衝撃は、日本を非軍事化から大きく方向を転換させ、創設された警察予備隊は治安部隊から防衛部隊へと性格を変化させた。切実な軍事的要請が二人の極東軍司令官をして部隊の重装備化と旧軍人の復帰による戦力化を決意させたのであった。

これに伴い復帰した旧軍人の影響が懸念されたが、旧軍人の何故負けたかという反省を起点とし、却って米軍の長所の学習が促進でき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結果、編成装備だけでなく積極的な米式作戦思想の受容が可能となり、日米の思考様式の共通化を出発点として今日の日米共同の基礎が作られたといえる。しかし、主権回復後の保安隊にとって課題となったのは、外征軍であった米軍とも攻勢主義であった旧陸軍とも異なり、国土防衛部隊として、いかにして精神基盤を確立し、作戦思想を構築していくかに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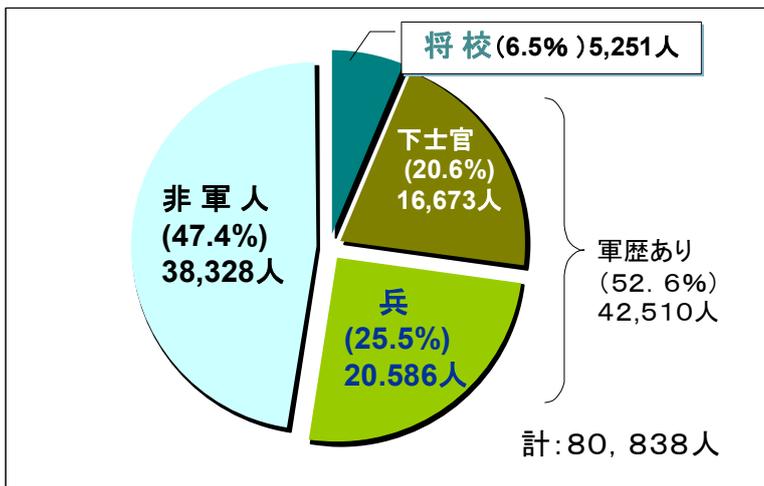
42) 渡壁正「私観浅史－自衛隊余話－」(『軍事史学』156号、錦正社、2004) 73 p.

【表1】
「訓練の期区分と訓練内容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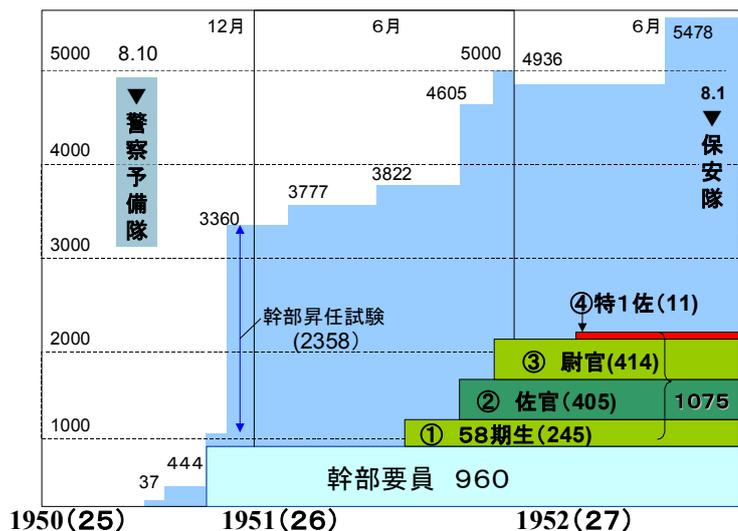
期区分	訓練段階	訓練内容	装 備
第1期 (13W) 1950.10～51.1.14	各個訓練	小火器取扱い、教育法、 治安維持行動	カービン銃 車両 480 両
第2期 (18W) 51.1.15～51.5.19	中隊訓練	小部隊訓練、法規教育、 教育法、射撃訓練	2～3月: 重機、軽機、60mm迫、75mmRL 4月～M15(16)、M16A1(48)
第3期 (18W) 51.6.4～51.10.6	大隊訓練	新部隊編制による訓練、 治安行動演習	7月: 車両 2130 両 9月～拳銃、小銃、自動銃、81mm迫(450)
第4期 (13W) 51.10.8～52.1.19	職種別訓練	技術部隊・管理部隊な どを含む職種別訓練	(米施設内での衛生・施設・補給・通信・ 武器・化学特技教育)
第5期 (19W) 52.2.4～52.6.13	大隊訓練 特技訓練	小部隊統合訓練 重装備訓練(相馬が原)	3月～89mmRL(443) (米施設内での火砲・戦車・重迫訓練)
第6期 (13W) 52.6.23～52.9.30	連隊訓練	連隊の野外行動訓練	8月～M24戦車(40)、105mm榴弾砲(154) 車両 15,000 両、10月～155mm榴弾砲(58)

【図1】

「警察予備隊員の軍歴調査」(1950末)



「幹部全体における旧正規将校数」 【図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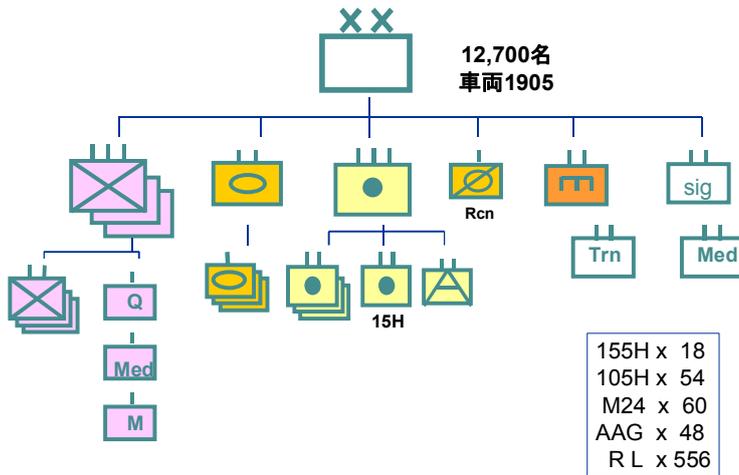


「警察予備隊に必要とされる兵器リスト」(抜粋) 【表2】

区分	種類及び数量 (1個歩兵師団装備数)	計	
火砲	M2 A1 105mm榴弾砲	228門 (54)	
	M1 155mm榴弾砲	76門 (18)	304門
対戦車火器	3.5吋(89mm)ロケットランチャー	2198門(465)	
戦車	M24 (75mm)軽戦車	36両 (9)	399両
	M26 (90mm)中戦車(M46)	307両 (123)	
	M4A3 (76mm)中戦車	25両	
	M45 (105mmF)戦車(M46)	31両 (12)	
支援戦車	M32戦車回収車	41両 (34)	91両
	MTngドーザー戦車	50両	
対空自走砲	M16(12.7mm×4)多連装自走砲	135両 (32)	270両
	M19(40mm×2)対空自走砲	135両 (32)	

「管区隊の編成」

【図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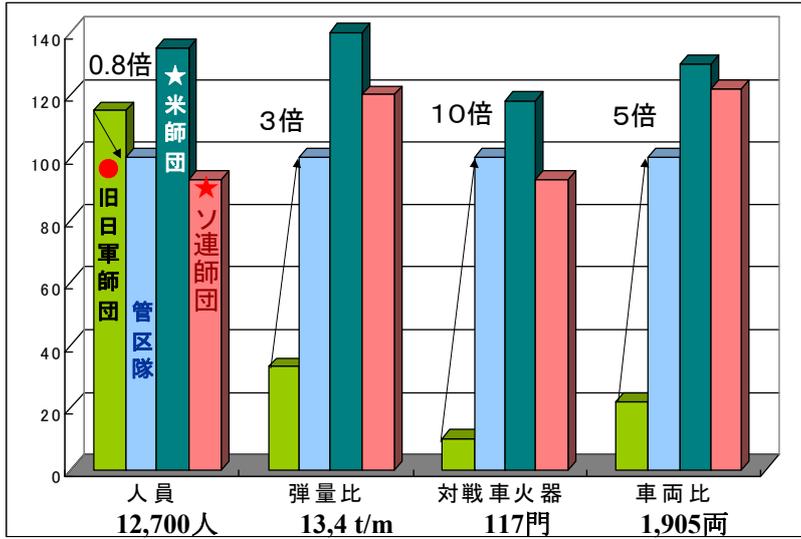


【表3】

「管区隊の各歩兵師団との戦力比較」

区分	人員	火炮	砲弾量 (t/m)	戦車	対戦車	対空	車両数	車両/人
日歩兵師団	14,640 (115)	36	4,4 (33)	0	12	0	410 (22)	35,7
管区隊	12,700 (100)	72	13,4 (100)	60	117	144	1,905 (100)	6,7
米歩兵師団	17,156 (135)	72	19,6 (140)	135	138	192	2,665 (139)	6,4
ソ狙撃師団	11,943 (94)	60	17,0 (120)	52	109	61	2,113 (122)	5,6

「管区隊の各歩兵師団との戦力比較」 【図4】



K C I

<ABSTRACT>

Korean War And Japan's National Police Reserve

Kazumi Kuzuhara

This paper, mainly based on the document of "The History of the National Police reserve of Japan, from July 1950 to April 1952," studies how the US Far East Military Forces affected the founding and development of the Japan's Police Reserve.

The outline of the paper is the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as so tremendous and widespread that the General Headquarter in Tokyo launched the Japan's National Police Reserve as 'covered planning.' The strong intervention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Force into the war forced General MacArthur, the commander of the GHQ, to provide it with US style ground weapon systems. And General Ridgeway, replacing the GHQ commander, urgently needed to introduce colonel class officers of the Imperial Army with command and staff capabilities to reinforce the current military status to cope with the Soviet's threats to Japan. These urgent and severe military requests reshap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force into military force for defending Japan. The introducing the ex army officers, causing the fear of revitalizing militarism, had contributed the consolidation and introducing modern military US style tactics by studying the Japanese way of waging war by Imperial Army and Navy; the study was initiated by eleven members including colonel class ex officers.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Reserve succeeded the US weapons and US style military doctrine and so on for the bases for the Japan US

relationships. And another issue was to develop its own defensive doctrine differing from that of the US forces as expeditionary ones nor that of Imperial army with exclusively offensive ones.

Key Words : National Police Reserve, CASA(Civil Affairs Section Annex), U.S. Far East Force, The Korean War

K C I